



# 조경수목산책 29

- 팽나무 -



임경빈  
농학박사

〈지난호에 이어〉

## 10. 신천수의 팽나무

신천수(新川藪)는 대구시를 지나서 흐르고 있는 신천 제방 위에 줄로 심어졌던 팽나무와 느티나무의 무리를 말한다. 지금은 현대적 도시정비로 말미암아서 없어지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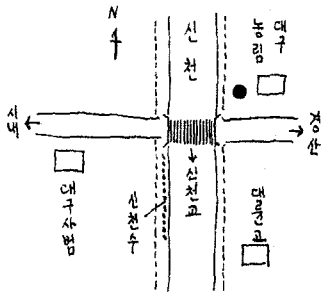
필자는 1930년대 후반 5년간을 대구에서 보냈고 그때의 나이가 10대의 후반을 차지했다. 말하자면 가장 왕성한 생리의 시대를 보낸 셈이다. 그때 대구농림학교 학생으로서 꿈도 많고 희열에 충만한 시간의 민속 안에서 지냈다. 그때 대구농림학교는 신천동(新川洞)에 있었고 나의 하숙집도 학교에서 가까운 신천동이었다. 그때의 집집의 모습, 골목길 길가의 나무, 길가의 점방, 길바닥에 박혀있던 돌의 크기와 모양, 그대



▲길가의 팽나무 경남 함안 여항면 외암리 초등학교 앞 1994. 7. 21

로의 기억이 아직 남아있다. 그만큼 강렬한 인상으로 그때의 환경은 고스란히 살아있다. 사진 앨범을 뒤지듯이 한 장면 한 장면이 생생하게 머리에 복사되어 나타난다.

이곳 지도는 지금은 확 달라졌지만 그때의 위치를 간단히 보이는 것이다. ● 표가 나의



▲1940년의 신천수의 위치도

하숙집의 위치이고 대구농림학교에서 멀지 않다. 시간의 여유가 있는 날이면 또래 또래 그룹이 되어서 대구 시내를 찾았다. 신천을 가로지르는 신천교는 나무다리로서 큰 트럭도 지나다닐 수 있는 큰 다리였다. 다리발(橋脚)도 굵은 나무였고 굵은 나무를 가로 깔고 그 위에 흙을 다진 것으로 지금은 어디에 가나 이런 다리는 거의 볼 수 없다. 때로는 다리 위에 구멍이 뻥 뚫려서 조심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기 알맞았다. 좀가다보면 왼쪽에 대구사범학교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지고 경북대학교로 흡수되고 말았다. 필자가 이상의 구구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신천수의 위치를 더 잘 지적하기 위한 예비공작에 불과하다.

그림을 보면 짐작이 가겠지만 신천교를 지나서 제방 왼쪽편에 이들 나무가 서 있었던 것이다. 그때의 신천수는 건전했다고 보아야 한다. 검은 줄기에 팽나무 특유의 수형으로 나란히 서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그때 대구생활 5년을 통해서 사는 동안 이들 나무의 영상(影像)을 두뇌 속에 사진을 찍듯이 찍어서 지금까지 소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신천수는 경상도읍지(慶尙道邑誌)에 대구(大丘), 임수(林藪), 신천수(新川藪), 동오리(東五里), 영조(英廟), 무술(戊戌)(1778년), 이숙축(李淑築)이라고 있다. 이처럼 신천수는 역사적으로 이름있는 것이었는데 현대화작업은 이것을 없애야한다는 그때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사라지고 말았다. 기록에 보면 느티나무 팽나무 등 흉고직경 최대

의 것은 70cm에 이르고 이처럼 큰 나무는 15그루나 되었다고 한다. 나의 학창시절에는 이 숫자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짐작한다. 대구 신천은 조선조 영조때 그것도 1736년경에 정비된 것으로 총독부 하천조사서에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신천수의 조성은 경상도읍지에 기록된 1778년경으로 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나무들이 남아있다면 수령 200년이 넘는 거구를 보여주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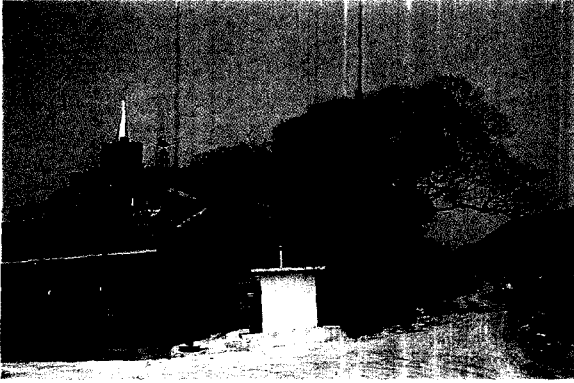
지금 이 근처를 찾으면 내가 서 있는 곳의 옛적 위치를 알아차리기 힘들다. 것처럼 세상이 달라졌다. 신천수의 팽나무는 영영 가고 말았지만 이곳에 글로나마 남겨서 그 나무들이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었던 갖가지 가치에 감사하는 것이다.

## 11. 백령도의 나무 그리고 팽나무

나는 산림청에서 주관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소위 『비무장



▲중화리교회 팽나무 줄기의 웅기 1998. 5. 15



▲백령도에서 가장 큰 팽나무 중화리 교회 앞  
1998. 5. 15  
▶백령도 중화리교회의 팽나무 1998. 5. 15



인접지대 생태계조사』를 위한 단원의 한 사람으로 참가하고 있다. 이 조사사업은 올해가 삼년째로 1998년 5월 중순경에 서해안쪽 백령도와 대청도를 중심으로 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나로서는 이들 섬에는 처음 가보는 기회로서 무언가 가슴 설레이게 하는 자극같은 것이 있었다. 이쪽 섬은 전에 듣기에는 이북에 접근해 있어서 탐방이 다소 까다로운 제한 아래에 있다고도 해서 그렇다면 꼭 가보아야 할 긴급성도 없고 해서 관심을 물어버리고 지났다. 그러나 백령도와 대청도는 위도상으로 보아 북쪽에 치우쳐 있으면서도 바닷물 흐름의 영향도 있어서 난대성 수목이 그곳까지 분포하고 있어서 나를 유혹하기도 했다. 특히 대청도의 동백나무 군락은 복한 자생지로 되어 있어서 꼭 한번 보아야겠다고 버리고 있었던 터이다. 이 소원이 성취되는 기회가 이번에 왔으니 나에게서는 여간 고마운 때가 아닐 수 없었다. 백령도는 꿈만 같은 섬이란 말

을 수차 듣고 있는데 그 꿈같은 것을 이번에 보기로 했다.

1998년 5월 11일 12시까지 인천 연안부두에 집결하기로 되어 있어 나는 전철을 타고 그곳으로 갔다. 때마침 서해는 풍량이 심해서 배가 결항이 된다는 광고가 있어 할 수 없이 가까이 있는 동경장 여관으로 가서 짐을 풀고 내일의 정세를 기다리기로 했다. 시간의 여유도 있고 또 영화관에서 타이타닉(Titanic) (큰 배의 이름)이란 영화가 상영중이었고 이것은 명화라해서 가서 구경했다. 좌초하는 타이타닉의 최후의 모습을 보이는 영화였는데 아비규환과 죽음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질서를 지켜 희생자를

극소화하는 훌륭한 인간상들이 감격적이었고 배의 침몰이 거의 끝나가는 데에도 타이타닉의 악단들은 명곡을 연주하면서 배의 최후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장면은 인간의 세계를 초월한 신의 영역에서 죽음을 행복으로 장식하는 거룩한 행동이었다. 감격적인 영화가 아닐 수 없었으나 내일 백령도로 가는 배가 타이타닉은 아니었으면 하는 심정은 내가 가냘픈 인간이기 때문이라.

5월 12일 아침 배는 또 결항이고 오후 2시 배는 출항한다고 한다. 2시에 인천항을 떠나 6시 10분에 소청도에 기착하고 6시 25분에는 대청도에 그리고 6시 45분에는 백령도에 도착할

수 있었다. 진촌동에 있는 문화호텔에 투숙하기로 했다. 깨끗하고 친절할 여관이였다. 오늘 항해에는 풍량이 다소 있어서 약 30분 가량 항해 시간이 더 소요되었다고 한다.

백령도의 팽나무 이야기를 쓰고자 하면서 서론이 길어졌으나 그 한 토막의 이야기를 나는 이곳에 남겨보고자 했다. 내가 백령도에서 인상받은 나무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회상해 본다. 백령도에 사는 사람들은 집에 대개 몇 그루의 무화과나무를 심고 가정과수로 하고 있다. 그래서 무화과의 열매는 그들의 익숙한 생활의 동반자로 되어 있다. 나는 진촌리의 어느 가정집을 찾았는데 뜰에 큰 무화과나무가 서 있었다. 뿌리목줄기직경이 약 40cm를 넘고 줄기는 위로 가면서 곧 3갈래로 갈라지고 있었는데 각각의 직경이 25cm, 25cm 그리고 20cm로 추정되었다. 내가 알고 있는 무화과나무로서는 매우 큰 축이었다. 무화과나무는 백령도의 원산은 아니겠으나 찾아와서 이제 이곳 향토수종처럼 되어가고 있다. 이로 미루어 백령도의 식물생태 기후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백령도에는 소나무도 있고 해송도 있으나 원래의 주인공은 소나무라고 생각되었다. 대청도에 가서 그곳 노인에게서 들은 이야기이지만 소나무가 대청도의 터주수종이었고 해송은 그뒤 들

어와서 큰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귀담아 들을 만한 촌로의 이야기라고 생각되었다. 그리고 모감주나무의 군락이 있었고 모감주나무의 거목도 있었다. 이 군락은 현재 남한에 존재하는 모감주나무의 분포북한지가 된다. 이것도 나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는 사실의 하나였다.

백령도의 해당화군락은 화려한 꽃밭을 만들어 우리를 놀라게 했다. 그곳에 간 날은 5월 14일이였다. 해당화의 군락이 있는 곳은 중화동 포구이고 바다가 이웃해 있는 습지의 낮은 모래 언덕을 덮고 있었다. 달뿌리풀들이 동반해서 분포하고 있는 것이 또한 인상적이었다. 오전 10시 반에 버스로 중화리로 갔다. 바닷가에는 깎아지른 듯한 돌의 절벽이 장관이고 해변에는 마모된 콩돌이 즐비하게 깔려있었다. 이곳 중화리에는 유명한 교회가 있다. 말로는 이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것이라 하며 1876년에 창건되었다고 한다. 나는 걸어서 이 교회를 찾았다. 이 교회는 낮은 언덕 위에서 있었고 계단을 따라 오르게 되어 있었다. 교회 경내에는 이 교회의 창건유래를 상세히 밝힌 석비가 서 있었다. 문제는 이 교회에 오르는 계단의 초입에 큰 팽나무가 두 그루 서있는데 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왼쪽나무 줄기의 가슴높이 지름은

1.2m로 그리고 오른쪽나무는 80cm로 추정되었고 수고는 20m쯤 되는것으로 보았다. 백령도를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큰 나무가 있을 만한 곳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곳 팽나무처럼 굵고 오래되었으리라고 여겨지는 나무는 따로 없었다. 말하자면 백령도의 최고로(最古老)의 나무로 생각되었다. 백령도에 이와 같은 팽나무가 있다는 것은 백령도의 식물생태적 성격을 말해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나무의 나이가 200년 이상으로 추정된다면 이곳 교회가 설립될 당시 이미 있었을 것이고 그때의 초기 교회의 사람들의 눈에 인각(印刻)된 나무들이라고 생각된다. 줄기의 아랫도리는 팽나무 특유의 용기를 보여주고 있었다. 교회계단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리라고 믿어지는 무궁화나무가 있었던 것도 잊을 수 없는 일이다. 이 교회는 백령도의 꿈같은 것도 아울러 담고 있는 것 같았다. 교회 뒷편에는 큰 소나무들이 서 있었고 언덕 아랫쪽 길옆에는 병아리꽃나무가 한창 꽃을 피우고 있었다. 순결을 자랑하는 듯한 병아리꽃나무가 호젓하게 말없이 피고 있었다. 화소난전성미청(花笑欄前聲未聽, 꽃은 웃어도 소리를 내지 않는다.)이란 글귀가 이곳 상황에 무척 어울리고 있었다.

## 12. 흑산도의 팽나무

흑산도. 환상의 섬 흑산도. 내가 흑산도를 찾은 것은 몇 번인가 된다. 기회가 왔었고 또 기회를 만들었다. 남쪽 바람을 숨쉬는 섬이다. 흥도로 갈 때 대개 이 섬의 예리(도는 진리) 항구에 손님을 내리고 태우고 한다.

말하자면 중간 기착지라 할까. 그냥 이곳을 지나 흥도로 가는 손님도 갑판 위에 나와서 흑산도 항구의 모습을 살피게 된다. 때로 파시(波市)로 이름난 이곳 흑산도. 이때 지나가는 길손에게나 내리는 손님에게나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두 그루의 팽나무이다. 검은 줄기에 바닷바람으로 알맞게 비스듬히 자라는 늙은 두 그루의 팽나무. 흑산도 항구의 상징목인 팽나무, 누구에게나 기억에 길이 남겨주는 나무이다.

전에는 이 나무 주변에는 더 많은 나무들이 있었겠으나 이런 저런 이유로 그들은 사라져 갔고 지금 두 그루만이 남아있



▲흑산도 진리의 팽나무 1994. 12.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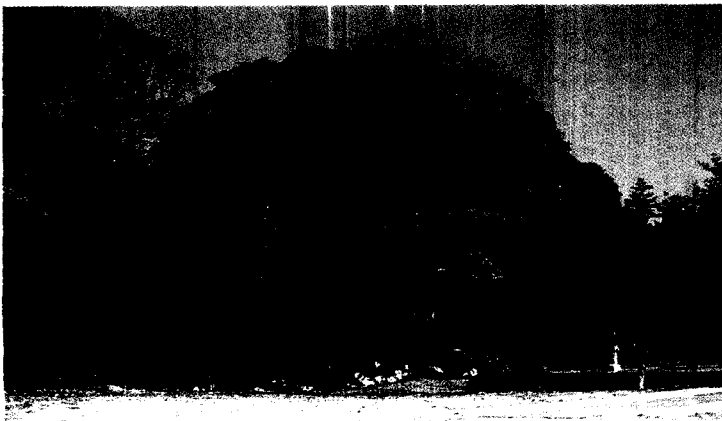
다. 그것도 팽나무. 이곳 터전이 그들에게 그나마 알맞아 다른 나무들이 떠나갔는 데에도 이 팽나무는 따뜻하고 약간은 습윤하고 약간은 소금기 있는 상황이 좋아서 남아 서 있다. 함께 살던 동료들이 떠난 것을 몹시 섭섭하게 여기는 그들이 다. 어느 때엔가 읽었던 시의 한 부분이 생각난다.

친한 친구 한 둘씩  
보이지 않고  
새로운 벗 만들자니

어렵기만 하네

이러한 느낌을 안고 있는 것이 바로 이곳의 팽나무이다. 바라건대 오래 살아서 먼 훗날까지 흑산도의 전설을 이어주기 바라는 것이다. 이러한 나무를 랜드마크츄리(Landmark Tree)로 말한다. 흑산도하면 먼저 우리를 반겨주는 이들 팽나무가 머리 속에 살아난다.

흑산도 진리에는 서낭당나무로서 오래된 팽나무가 서 있다. 돌로 울을 치고 나무 아래에 석탑이 있다. 나무줄기에 마삭줄이 뽀뽀히 붙어 있는 것을 보면 이 나무는 사람들의 손을 타지 않고 자연 그대로 살아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 마귀를 쫓고 복을 불러들이고 풍성한 고기떼를 몰아오는 신령스러운 힘이 이 나무 안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 이처럼 남쪽 섬에서는 팽나무가 힘을 쓰고 있다. **조경수**



▲팽나무 이팝나무 느티나무숲 전남 영광 원불교 대종사 대각처 1987. 11